

Soviet foreign policy, 1953~1962

by Vojtech Mastny

이중구

- 스탈린의 사망과 쿠바 위기 사이의 10년은 냉전적 대립 완화의 희망과 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이 공존. 왜 냉전적 대립 완화의 희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이 더 커졌는지를 설명. 소련 정책결정자들이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실제로 달성한 것으로 중심 평가.
- 소련의 외교정책은 다른 나라와 상이. 맑스-레닌주의의 이념에 따라 다른 국가의 외교정책에 대한 인식이 결정되고,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권력으로 외교정책 방면에 강점을 가짐.

A missed chance? 스탈린 사망(1953. 3)

- 말렌코프, 몰로토프, 흐루쇼프, 베리아
- 5월 “신 노선”을 둘러싼 동요. 베리아 독일의 통일 및 중립화. 비밀경찰을 관장하던 베리아의 위치는 서방 상대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장애.
- 1953년 6월 동독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베리아는 봉기를 진압하는 방안에 동의했으나, 며칠 뒤 체포되어 실권함. 이어 베리아는 날조된 혐의로 처형받음.
- 베리아 죄목 중 흥미롭게도 동독 봉기의 책임은 빠져 있음. 긴박성은 크레믈린 지도자들의 취약성을 강조. 이 취약성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 대외정책 상의 위험을 피하게 만들. 냉전을 축소시키기 위한 기회는 부상하기도 전에 사라져 버림.

Molotov's blunders

- 몰로토프의 대외정책은 스탈린 없는 스탈린의 것. 몰로토프는 스탈린의 독일에 대한 중립화 통일방안(1952. 3)을 다시 제기함. 이 제안은 동독의 해체를 상정하지 않고 동독 체제를 기초로 통일된 “민주” 독일을 만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베리아의 제안과 상이. 이러한 수정안은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했으나, 그 철수 시점은 소련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전-독일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임. 이점에서 몰로토프 수정안은 개선된 것 아님.
- 몰로토프의 독일통일 방안은 강경한 반소주의자 아데나워의 먹잇감으로, 아데나워는 1953년 9월 선거에서 승리. 그럼에도 몰로토프는 - 서독, 미국에게는 금기인 - 양독 간 대등한 협상에 의한 통일방안을 이어서 내놓음. 소련 방식의 독일문제 해결을 오스트리아의 4국 점령 종료를 위한 전제로 내걸음. 1954년 1월 외무장관 회담의 결렬은 기정사실.
- 몰로토프의 이러한 정책은 자본주의 국가간의 내재적 모순을 이용하여 소련이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를 벌락 NATO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이념적 전제. 유럽 내의 위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은 미국의 유럽방위공동체(EDC) 창설 노력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었음.
- 몰로토프의 진짜 대응방향은 “역전된 몬로 독트린”. 소련이 외부간섭으로부터 유럽을 보호. 캐나다와 미국 없이 유럽안보회의 개최할 것을 주장. 1954년 제네바 컨퍼런스에서 몰로토프는 자본주의 진영 내에 불화가 커지고 있다고 믿어. EDC 창설을 반대한 프랑스의 결정을 “애국적”인 것으로 평가. 일전의 유럽안보회의 개최 제안을 다시금 제기.
- 만약 소련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미국은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 두달 뒤 몰로토프 외교정책은 파산. EDC 대신 파리조약으로 서독의 NATO 내 재무장 허용.

Khrushchev's innovations

- 이러한 외교정책 실패의 역풍으로 평화적 조정을 역설하던 말렌코프가 주된 희생자가 됨. 말렌코프는 핵전쟁이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에도 완전한 재앙이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스탈린 시대 교리를 깨뜨린 바 있음. 처칠은 그를 영소관계 개선의 희망으로 간주. 그러나 권력이양은 몰로토프, 흐루쇼프와 같은 강경파의 승리로 귀착. 흐루쇼프가 당서기국 중심 지위를 확보하게 되나, 책략가임에도 외교정책에는 경험 전무. 몰로토프에 비추어 보다 독립적 사고를 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었지만 파리조약 대처 과정에서 혁신적 정신 보여줌.
- 몰로토프는 파리조약에 과거의 방식으로 대처. 적대진영 내에 불화를 조장하고자 “유럽” 안보회의를 개최했으나, 소련의 동맹국만 참석하는 데 불과. 부득이 그는 1955년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의 체결로 이어진 흐루쇼프의 후퇴 정책에 협력하기 시작.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은 오스트리아의 중립을 확보하고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규정. 이를 통해 흐루쇼프는 소련이 전쟁에 반대하는 국가임을 부각시킴.
- 흐루쇼프는 소련이 군사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냉전의 비군사화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새로운 사고를 제시. 서독의 나토가입이 확실해지자, 소련은 가장 신뢰성있는 군축 제안(1955. 5. 10)을 제출. 이어진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창설(1955. 5. 14)과 모순되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협상욕구를 전달.
- 1955년 5월은 소련 외교에서 가장 다사다난한 달로서 흐루쇼프는 여러 지역에서 운동을 선동. 흐루쇼프는 유고 방문으로 티토를 회유, 소련측으로 유인. 제3세계 진출로 유럽에서의 실패를 보상. 체코를 통한 이집트로의 무기판매, 소련지도자들의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 방문으로 반서방 정서를 확산. 당장 제3세계로의 냉전 확대는 흐루쇼프가 긴장완화 속에 비군사적 경쟁으로 서방에 대한 형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자리를 잡게 함.

The fruits of detente

- 흐루쇼프는 소련 체제의 이념적 자산, 정치적 역량, 경제적 우월성으로 자본주의 적대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음. 당시에는 좌우의 입장을 떠나 서방지식인들마저도 서방이 소련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봄. 흐루쇼프는 자본주의에는 미래가 없으며 필요 상 양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 냉전의 비군사화는 그러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 “1차 데탕트”
- 1955년 7월 제네바 미소정상회담으로 데탕트가 시작. 소련은 기존의 군축제안,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를 위한 집단안보조약 초안을 정상회담에서 제시. 이들 제안은 거부되었음에도 흐루쇼프는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 이어 서독의 나토 가입에 흐루쇼프는 독소교역과 독일포로 석방 약속을 미끼로 한 아데나워 초청으로 응수, 그는 아데나워가 동독의 지위에 영향 없이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데 동의하게 함으로써 선수침. 또한 흐루쇼프는 방소한 아이나르 가르합슨 노르웨이 총리에게 서유럽의 평화적 정복 비전을 내보임. 원하는 만큼 소련군대를 후퇴시키겠다고 강조. 아무런 대가 없이, 소련은 우호적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헬싱키의 해군기지를 철폐. 곧 아이슬란드 의회도 미공군기지의 폐쇄를 요구하려는 의향을 보임.
- 비군사화는 일부 실제 실천됨. 극동에서는 대련기지를 중국에 반환. 스탈린과 달리, 흐루쇼프는 해외 공산세력들이 소련을 인정하는 이유가 힘의 우위보다는 이념적 친밀성에 있기를 원했음. 스탈린이 만들었던 코민포름(정보국)을 해체했으며, 유럽의 공산당들의 사민당과의 협조를 장려.
- 1956년 2월 흐루쇼프의 역사적인 스탈린 격하발언은 두 방식으로 대외정책을 잠식. 중국측 스탈린주의자들을 격앙케 했으며, 동유럽의 인민들이 보다 대담해지게 함.

The challenge in Eastern Europe

- 1956년 10월 동유럽의 반체제 시위가 사회주의로의 불가역적 진보라는 흐루쇼프의 가정에 의문을 던짐. 후일 공개된 증거에서는, 소련의 대응은 당시 생각되던 것과는 매우 상이했음. 노동자 봉기의 여파로 폴란드 공산당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자, 흐루쇼프의 대응은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무력사용 검토. 무력불사용의 주된 이유는 적시에 이루어진 북경의 폴란드 공산당의 독자노선에 대한 분명한 지지에 있었음.
- 헝가리의 공산당 지배 붕괴 초기에도 소련 지도부는 무력사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음. 이 때 결정적이었던 것은 헝가리가 다른 공산국가들이 오스트리아의 선례를 따라 중립을 선택할 가능성. 이 경우 다른 국가들도 헝가리를 뒤따를 수 있음.
-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도 소련 지도부의 고민을 보여줌. 흐루쇼프는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몰로토프마저도 헝가리를 자신의 선택에 맡기는 방안으로 기울어졌음. 이 때에는 중국이 소련의 헝가리 사태 개입을 선호한다는 바를 표명, 하루 밤새 소련의 불개입 결정은 번복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루쇼프는 동유럽 지도자들과 상의, 티토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 유고를 방문.
- 수에즈 운하 문제에 대한 영프의 개입은 수에즈 사태에 대한 서구의 개입이 소련의 개입을 가능하게 혹은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켰다는 논의를 낳았으나, 실제 두 사태의 연결은 그와 상이. 이집트 침공이 미국의 최후통첩으로 취소되었을 때, 소련의 헝가리 사태 진압은 이미 본격화. 이때, 모스크바는 이집트 공격 중지 않으면 런던과 파리에 대한 핵공격 위협.
- 흐루쇼프는 자신이 이집트에서 서구를 물러나게 한 것이라고 믿음. 동유럽에서 보여준 위기 관리의 약점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불필요한 위기를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여줌.

“Lacking confidence and bluffing”

- 헝가리 봉기 이후 저우언라이는 소련 지도부의 상태를 자신감이 부족하여 위협에 매달리는 것으로서 옳게 파악.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에게 “그들의 오만함과 자만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규율과 질서가 부족한 분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신감이 없고 내부의 두려움에 시달려 보이고, 그 때문에 국제문제를 다룸에 있어 공갈 혹은 위협의 전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 헝가리를 소련군이 점령한 상태에서도, 소련지도부는 아이젠하워의 영공공개 제안을 수용하면서 군축회담을 다시 한번 요구. 추가적 군축과 불가침 제안을 계속. 1957년 4월 경까지 소련 고위관료들은 방문하는 공산당 인사들에게 “이제 사태는 진정되었다”, 데탕트를 재개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음.
- 한편 흐루쇼프는 미소간의 합의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호전적 수사를 강화. 흐루쇼프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헝가리의 “폭동”을 부추겼다고 비난. 미군을 받아들이면 핵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함으로써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협박. 흐루쇼프는 자국 핵무기의 폭발력을 과장.
- 1957년 6월, 흐루쇼프 축출이 시도된 비밀 당 전원회의에서, 흐루쇼프 대외정책들은 소련 특유의 방식으로 검토됨. 몰로토프는 흐루쇼프를 자본주의 진영 내부의 분열을 이용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품위없는 행동으로 소련의 위신을 깎아내렸다고 비난. 미코얀은 흐루쇼프를 옹호하면서 제국주의의 모순을 이용하는 데 흐루쇼프는 그 누구보다 성공적이었다고 주장. (유럽공동시장이 설립된 1957년 로마조약에서 보듯이 실상은 반대.)
- 공산주의 내부의 모순에 대한 관리에서도 흐루쇼프는 숙련되지 못함. 소련 공산당에 인정받

으려 노력하는 폴란드 공산당을 제명하려 함. 티토를 회유하기 위해 티토로부터 후견국들을 지켜 줄 루마니아의 소련군을 철수시킴. 중국에 대한 핵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감을 삼.

The Sputnik effect

- 흐루쇼프에게 1957년 10월 스푸트니크호의 발사는 하늘이 준 선물. 미국은 미사일에서 소련이 앞서가고 있다고 인식. 이러한 오식을 이용함에 있어, 흐루쇼프는 과장의 위협을 감수. 흐루쇼프의 최우선과제인 독일문제의 취급에서 이러한 점은 뚜렷히 나타남.
- 대외선전과 달리, 실제로 흐루쇼프가 스탈린처럼 독일의 위협에 집착했던 것은 아님. 예리한 소련외교관에 따르면, 독일 내 핵무기가 소련 지도부나 군부를 겁먹게 했던 것은 아님. 서독의 가능한 핵위협을 이용하여 서유럽을 분열시키기 위해 강한 선전캠페인을 발동한 것.
- 1948~49년 베를린에 대한 금수가 실패한 이래 소련은 서베를린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동독에 떠밀리지 않았으나, 1958년 여름에 두 별개의 사태에 대한 시각에서 베를린문제에 대한 계산이 변화하기 시작: 이라크 내 좌익군인들의 쿠데타, 중국의 금문도·마조도 포격. i) 이라크 쿠데타와 관련해서 미국 개입에서 불개입으로 선회했으나, 흐루쇼프는 아이젠하워에게 위협적 메시지를 보냄. 미국의 불개입이 확실해지고나서는 위협이 미국에 먹혔다고 확신. ii) 1957년 9월 중국의 대만상륙이 임박해보이자, 흐루쇼프는 미국에 공개적으로 경고.
- 1958년 8월 중순, 소련은 동독에게 독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4강 회담 제안을 위임. 동독의 발표 후 흐루쇼프가 압박을 결정하기까지 십여 주가 흐름. 서방의 결의를 시험한다는 결정을 마무리지은 것은 금문도, 마조도가 베를린처럼 중요하다는 덜레스 국방장관의 공개 경고. 소련 지도부는 대만과 베를린 양쪽에서 덜레스를 겁박하기로 결정.

The making of the Berlin crisis

- 흐루쇼프는 일단 저지르고 봄. 흐루쇼프의 1958년 11월 11일 최후통첩은 6개월 이내에 소련이 원하는대로 독일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베를린으로의 통로를 차단하겠다고 위협. 이 위협의 목적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큰 거래가 필요하게 될 것임을 인정. 미국 지도자들이 베를린 문제로 전쟁을 할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전제.
- 서방의 반응이 없이 기한에 다가가자, 흐루쇼프는 동요.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맥밀란 영국총리에게 서베를린을 “자유도시”로 만들자는 유화적인 잠정해법을 제시. 이 제안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흐루쇼프는 아이젠하워와의 정상회담에 전적인 기대를 걸게 됨.
- 1959년 9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미소정상회담에서, 아이젠하워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으나, 흐루쇼프는 - 독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보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 원하는대로 믿음. 흐루쇼프는 이데올로기적 적대감을 잊어버리면서 미국 순방 중 받은 관심에 휩쓸림. 중국방문 직전 유엔에서 또다른 급진적 군축제안을 내세움. 9월 말 방중 시 흐루쇼프는 마오에게 미국 대통령과 구축한 접촉에 관해 낙관론을 펴. 귀국 후 흐루쇼프는 최대 규모의 일방적 감군조치에 착수. 감군을 정당화하기 위해, 흐루쇼프는 세계에 소련의 평화적 의도를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까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
- 흐루쇼프의 낙관론이 지속된 기간은 얼마 가지 못함. 중국에게 투항주의로 비치자, 흐루쇼프는 독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답이 없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 1960년 5월로 예정되어 있던 파리 미소정상회담의 결과를 예단. 정상회담에서 베를린에 대한 합의 달성 못하면 동독과 별도의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위협. U2기 격추사건(1960. 5. 1) 이전에 이미 정상회담은 수명을 다함. 상황의 반전카드로서 U2기 생존 조종사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흐루

쇼프는 다음 계획도 없이 아이젠하워를 고의적으로 당황시키고 정상회담을 결렬시킴.

- 이후 흐루쇼프는 케네디 행정부 출범까지 베를린에 대한 추가행동을 연기. 그 사이에 그는 안달하듯이 행동. 유엔총회에서 구두를 집어던지고 유엔을 뉴욕 밖 이전을 제안.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소련군은 스탈린의 방어적 계획을 공격 계획으로 대체.

To the brink of war

- 흐루쇼프는 공화당 정부와의 협상가 좌초되었으므로, 새로운 민주당 정부에 우호적인 면모를 보일 이유가 있었음. 케네디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보다 타협적일 것이라고 보고받음. 흐루쇼프도 1961년 3월 동유럽지도자와의 비공개회담에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진정 원하며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그러나 흐루쇼프는 6월 비엔나정상회담에서 정반대로 행동
- 4월 이전, 흐루쇼프는 피그만 침공 등 미국 새 행정부의 어리석음을 목도. 케네디가 아주 영리하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고, 케네디를 회유하기보다는 협박하기로 결정. 5월 말 당 간부회의에서 동독과 별도의 평화협정 체결 의도를 표명. 전쟁 회피 확률이 95%라고 강조. 보다 개방적 체제에서는 공론을 거쳐 핵전쟁 위험 5%의 정책은 분명 중지되었을 것. 소련 지도부 가운데에는, 위험이 보다 높다고 본 미코얀만이 이의를 제기. 비엔나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는 길에서도, 흐루쇼프는 이러한 계산을 반복.
- 케네디는 비엔나정상회담에서 유약하게 행동하지 않음. 케네디는 소련의 일방적 행동으로 인한 전쟁 발발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나, 물러서지 않음. 미국의 정책은 일부 집단의 영향력 때문에 예측불가능하다는 흐루쇼프의 신념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임.
- 유럽에 증원군을 파견한다는 케네디의 7월 26일 발표 이전에 소련은 유사시 계획을 준비. 미국의 조치는 단독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흐루쇼프의 의도를 변화시키지 못함. 모스크바는 결국 다른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서베를린의 차단을 승인. 흐루쇼프가 동유럽 지도자들과의 특별 비밀회의에서 이 작전이 임박했음을 공개했을 때, 협정 체결과 후속사태 대처 논의. 협상에 의한 해결과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 8월 11일 전쟁에 보다 접근.

The Wall and its aftermath

- 봉쇄는 단계적으로 진행됨. 우선 철조망, 추후 콘크리트 장벽. 진행과정은 처음에는 베를린 시민들의 전 베를린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한 합의를 위배한 것에 대한 서방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것. 그러나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에서 보듯이, 신중함보다 대담함에 방점.
- 공개된 자료들은 장벽이 진정 효과를 발휘했다는 일반적 믿음을 반박해줌. 소련은 별도의 평화협정이 서명된다는 전제 위에서 동독 측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서방의 군사적 대응은 계속 고려되고 있었음. 총돌의 성격은 9월 후반 독일 내 소련군사령부에서 전개된 바르샤바조약기구 군사훈련 코드명 “베리아(buria, 핵전쟁)”에서도 알 수 있음. 훈련의 시작일은 추정 10월 1일의 평화협정 서명일. 이에 서방이 어떻게 대응할지 소련은 누설된 작전계획을 통해 알고 있었음. 나토의 선택지는 기갑부대를 이용한 베를린으로의 진입로 확보부터 공중 핵폭발 시위까지 걸쳐 있었음. 소련의 베리아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단계는 집중적인 핵사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며칠 내 유럽대륙 대부분을 점령하기 위한, 서유럽을 향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대규모 진공. 어쨌든 시나리오는 작성자들에게 실현가능한 것으로 믿어졌으며, 소련 전략기획의 핵심으로 1987년까지 남아 있었음.
- 소련의 과시적인 핵실험 재개는 임박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서방의 대응을 단념시키기 위해 계획되었을 수 있음. 다른 한편, 북극해에서의 역대 최대규모 핵무기(차르 봄바) 폭발에

서 절정에 이렀던 핵실험 조치는 흐루쇼프의 후퇴를 가리는 연막으로 이해됨.

- 흐루쇼프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위해 준비되었던 서류는 동독과의 단독 평화협정 초안은 준비되었으나 추후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사태는 이러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신 베를린문제에 대한 흐루쇼프의 대처가 지도자로서 무능함을 보여준다고 간주한 중국과의 충돌로 귀결.
- 10월 17일 흐루쇼프는 22차 소공 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독일 평화협정의 시한 취소를 발표. 추후 흐루쇼프는 불만이 있었을 동독 울브리히트에게 최선의 결과를 달성했다고 설명.

The cuban adventure

- 평화협정 이슈 재론을 위한 흐루쇼프의 반복된 시도는 3년 전 베를린 대립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보여줌. 미국이 소련에게 유리한 “미사일 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표함으로써 그의 불만은 확대됨. 공교롭게 같은 시기 알바니아는 소련 권위를 무시, 중국 지지.
- 1955년처럼, 흐루쇼프는 소련의 손실을 냉전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보상하려 함. 다만 이번에는 군사력을 활용. 고르쉬코프 제독은 지중해 연안 소련의 영구주둔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집트 방문. 소련은 벨기에령 콩고의 내전에 개입. 미국이 지원하는 침공을 막기 위한 무기판매를 요청하는 카스트로의 주장에 호응. 1962년 2월 소련 정보부는 미국 방부가 카스트로를 10월까지 전복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임을 확인.
- 여러 증거들로부터 쿠바 내 미사일기지 건설에 대한 소련의 주된 의도는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쿠바혁명을 구하려는 욕구였었음. 흐루쇼프가 이를 직접 결정하고, 카스트로에게 사후 통보.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흐루쇼프의 결정은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음. 소련지도부는 쿠바혁명가들에게 매혹, 중국의 점증하는 압력 때문에 색 바랜 혁명업적을 일신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낌.
- 그럼에도 미국의 뒷마당에 핵무기를 비밀리에 배치한다는 구상을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무리한 조치. 흐루쇼프는 11월 쿠바 미사일 배치를 발표한 뒤 행보 고려치 않음. 발각 시의 대비계획도 없음. 이 작전은 7월 4일 개시됨. 주 목적을 감추기 위해 미사일과 소련군 부대는 마지막에 출발했으나, 미국이 발견할 것이 뻔한 소련 핵잠수함은 조기 출항. 흐루쇼프는 작전관리에 태만. 미국의 경고에 흐루쇼프는 눈치를 쳤지만, 작전을 중지하지 않음. 전략미사일 배치, 전술핵무기 전개를 진행. 핵미사일의 발사에 관한 경계도 크게 부족. 소련 국방부는 유사시 발사권한을 쿠바의 소련군 사령관이 갖기를 원함.
- 미국의 소련 전략미사일 발견과 케네디의 10월 22일 대국민연설로 소련지도부는 공황상태. 비상회의에서 흐루쇼프는 자신의 후회를 드러냄.

The tragedy of Soviet foreign policy

- 스탈린의 직속 후임자들이 체제의 약점 때문에 서방을 포용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못한 반면, 흐루쇼프는 데탕트를 감행. 그러나 체제는 결국 그를 저버림. 위험한 상황들의 책임은 흐루쇼프의 개인적 결점보다도 그를 권좌에 올린 체제의 문제에 돌려져야.